

■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 요구 배경과 전망

“현 공항 확충은 더 큰 환경파괴 일으켜”

원 지사, 제2공항 건설외엔 대안 없다 자의적 판단 “도민 여론 존중” 문 대통령과 대립각 이슈화 내포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강력한 투쟁 천명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0일 제2공항 건설 강행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제2공항 건설 반대 여론에 반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또 제2공항과 관련, ‘도민 여론을 존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 이슈화시켜보겠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이날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초기 찬성 여론이 반대로 돌아선 것은 관광객 급증에 따른 제주의 환경 관리 역량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고 제2공항에서 먼 지역 반대 우세는 접근성 보완으

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 제주공항 확장 여론을 의식해 “제주국제공항 확충은 불가능하고 바다쪽으로 공항을 넓히는 것은 더 큰 환경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의 엔지니어링 관련 자회사인 ADPI는 현 제주공항 확충만으로도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원 지사는 “여론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그대로 전달했는데, 공문으로 제주의 입장을 요구한 건 책임을 도정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비난한 후 문재인 대통령에는 “직접 가덕도를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면서 제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지사가 문 대통령의 ‘도민 여론을 존중하겠다’는 뜻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원 지사의 이같은 결정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제2공항 갈등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됐다.

지난 2015년 11월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후보지(성산읍)선정후 6년동안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합의를 통해 ‘도민 의견 수렴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합의하고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줄곧 여론 조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를 선택했고 성산주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여론 조사후 20여일 동안 침묵을 지켰던 원 지사는 이날 ‘제2공항 건설 반대 의견’을 택하지 않고 성산주민들이 선호하는 제2공항 건설 강행을 선택했다.

이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현 제주공항을 활용하면 미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강행에 앞장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고대기자 bigroad@ihalla.com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에 ‘엇갈린 여론’

반대단체·민주당·정의당 “도민 여론·합의 무시” 국민의힘 “국토부, 제주도정 의견 적극 수용해야”

제주도가 10일 제2공항 정상 추진 촉구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을 두고 다시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해 “도민 의견을 거역한 원희룡 지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회의는 “지난 9일 국토부 항공실장이 제주도 행정부지사과 면담하고 나서 이튿날 제주도가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것은 국토부와 찜짜미를 통해 사업 강행을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현 제주공항을 활용하면 미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강행에 앞장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원 지사는 더 이상 도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질이 없다”고 힐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원 지사가 도의회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성산 지역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다는 원 지사의 판단에 대해 “전체 성산 주민 의견은 찬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공항 부지로 수용되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호도한 것”이라

고 꼬집었다. 이어 “원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제주의 미래가 달린 현안을 이용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 의견 발표 직접 논평을 내 “제2공항 정상 추진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민의를 역행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정상 추진 의견을 내면) 원희룡 도정은 마침표를 찍기 바랐던 도민들을 무시하고 더 큰 갈등을 조장한 당사자로 성난 파도와 같은 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도의 정상 추진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제2공항 추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지역주민 수용성은 주민들의 높은 찬성 의견으로 사실상 해소됐다”며 “앞으로 제주도정은 제2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골고루 확보하고 환경 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를 향해서는 “제주도정의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회 원내대표인 오영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제2공항 정상 추진에 힘을 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상민·강민성기자



10일 제주시 애항운동장에서 열린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구 보상설명회에서 토지구보상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 난항 전망

어제 토지구 보상 설명회 개최 감정평가·추진 과정 등 반발

도내 첫 민간특례사업인 제주시 오등봉공원의 보상 설명회가 열렸지만 토지구 보상 기준의 차이로 주민 반발이 지속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시는 10일 오후 제주시 애항운동장에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구 보상설명회를 열고 토지구보상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은 “시에서 감정평가업체 1곳, 토지구보상위원회에서 업체 1곳, 호반건설 1곳 총 3곳 감정평가업체가를 선정해 이들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을

보상금으로 책정해 드릴 것”이라며 “평가 시 토지구가 직접 토지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게끔 조치하고 2022년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지구들은 공원지구 해제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해달라고 항의했다.

토지구 A씨는 “갖고 있는 땅이 공

원 지구로 묶여 20년간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갔다. 아파트·주택을 짓고 있는 토지주는 소득을 벌고 공원지구를 소유한 토지주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은 불평등하다”며 “주택을 짓고 있는 땅을 기준으로 토지구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형태 과장은 “제주시의 모든 공원지구는 공시지가의 5배를 보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토지구 특성을 고려해 감정평가업체 3곳에서 평균을 낸 금액을 보상금으로 책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토지구 B씨는 “도에서도 분명 공원지구를 해제한 상태에서 감정을 평가해서 돈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감정업체를 선정, 보상협의회가 구성돼 그분들이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얘기다. 정확한 감정 평가 기준을 제시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뿐만 아니라 토지구들은 제주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토지구 C씨는 “보상 설명회 개최 전 미리 토지구 측 대표자들과 대략적인 보상 기준과 규모를 협의했어야 했다”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다면 집단 소송을 해서라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오후 5-9시 야간 돌봄서비스

영상크리에이터 모집·운영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장애가족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간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코로나19로 늘고 있는 장애 가족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금요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서귀포시장애인회관에서 이뤄지며 1회당 이용료는 1만원이다. 돌봄활동은 물론 학습활동과 저녁이 제공된다. 이용신청은 센터로 직접 하면 된다. 문의 733-6611. 백극락기자

서귀포시가 영상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 시정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유튜브를 통한 양방향 소통행정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시민이 직접 발굴·취재하는 서귀포시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2021년 서귀포영상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5팀(팀 또는 개인) 내외로 소정의 제작료를 지원받게 된다.

모집은 오는 22일까지 이뤄지며,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서귀포시 이메일(seogwipo-si@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백극락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방수 벽화(건물, 담장) / 인테리어 벽화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누출청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13년생 과수능가 보급품종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남진해(카라향), 제라몬, 탐나는봉. 가정원예(조경수)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나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신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귤 1,3,4년생 탱자묘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시라향, 아미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아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